

「청년 삶 실태조사」 결과 도 청년정책 연계방안

박 춘 섭 책임 연구원

충남연구원 사회통합연구실

jacobp73@cni.re.kr

이 과제는 청년대상 최초의 국가승인 통계조사인 「청년 삶 실태조사」의 결과분석 및 검토를 통한 충청남도 청년정책 연계방안 제언을 목적으로 함

CONTENTS

1. 조사개요
2. 주요결과
3. 결과검토
4. 정책제언

요약

- 「청년 삶 실태조사」는 창간기본법에 의거한 의무조사로, 조사목적은 삶의 실태육구인식 파악하여 청년 삶의 질을 제고하는 정책기초자료로서 활용하는 데 있음
- 조사항목은 주거, 건강, 교육훈련, 노동, 관계·참여, 사회인식 및 미래설계, 경제 등 8개 부문으로 구성되며, 아래와 같은 충남청년의 특징이 나타남
- (자립) 부모 동거비율이 낮으면서도(48.2%), 자립시기를 자산형성 (26.5%)보다 취업이후(37.3%)로 보고 있어 자립은 취업과 밀접히 연결
- (주거) 지속거주의향은 66.4%로 낮음. 현 거주이유가 학업 또는 일자리 비중이 33.9%(전국 2위)로 높고, 이유이유로 일자리(28.6%)뿐만 아니라 주거환경 (20.7%), 문화기회(23.0%)로 나타나, 적극적 정주환경 개선이 필요
- (교육) 대학 미진학자의 교육훈련 선호분야의 경우, 특정직종과 관련된 직업훈련으로 46.2%(전체 36.3%)로 높은 반면, 받고 싶지 않음은 29.5% (전체 36.9%)로 낮아 체계적인 교육지원의 필요
- (노동) 퇴직이유로 학업(14.3%), 일의 적성에 안 맞음(13.8%)의 이유가 높아 일자리정책은 일자리의 질 및 다양성, 역량강화 등 다양한 요소 고려 필요
- (1인가구) 1인가구 청년들은 일·학업으로 지역을 선택하여 거주이향이 낮은 반면, 건강스트레스 등으로 유병우려가 높고, 생활비중 거주비 부담이 높아 경제·사회적 고립할 가능성이 높아 적극적 정책이 필요한 것으로 나타남
- (정책제언) 이와 같은 실태조사 결과를 바탕으로 ①청년전문가 인터뷰조사, ②정책분석을 통해 3대 사업을 제안 인프라형(다기능 기숙사), 연계협력형 (통합교육과정 운영), 제도형(지원제도 도입) 등을 제시

01 조사개요

1. 「청년 삶 실태조사」 개요

● 추진배경 및 목적

- 2020년 제정시행된 「청년기본법」에 의거 2년마다 실시의무, 2022년 조사는 첫 조사에 해당
- 조사목적은 청년층의 삶의 실태와 특성, 욕구 및 인식을 파악, 청년의 삶을 질을 제고할 수 있는 정책기초자료로서 활용하고자 추진
- 조사대상은 전국의 만19~34세 청년을 포함하는 가구, 즉 전국 17개 시·도 일반가구 내의 19~34세 가구원과 그 가구원

● 조사의 특징

- 조사기관은 국무조정실 청년정책기획관이며, 한국보건사회연구원·한국통계진흥원에 의뢰·추진
- 목표표본으로 전국 1만 5천 가구였으며, 최종분석에는 14,966가구, 14,966명의 청년이 응답
- 조사항목은 일반사항, 주거, 건강, 교육훈련, 노동, 관계 및 참여, 사회인식 및 미래설계, 경제 8개 부문으로 구성
- 조사기간은 2022년 7.18~8.26일로, 조사방법은 면접조사로 진행

● 조사항목의 주요내용

영역	주요 내용
일반사항	<ul style="list-style-type: none"> • 청년의 성별, 생년과 생월, 교육수준, 경제활동 상태 • 부모 교육수준 • 가구 유형(한부모, 조손, 자립준비청년, 해당없음) • 국민기초생활보장제도 수급 여부 및 경험 • 은둔/고립 유무, 기간과 주된 이유 • 돌봄 여부, 장애유무 • 국적, 부모의 국적, 귀화여부 • 혼인 상태
주거	<ul style="list-style-type: none"> • 부모 동거 여부 및 기간, 독립계획 유무 및 이유 • 기숙사 및 임대주택 거주 경험 • 주거 점유형태, 구입자금, 주택유형 • 거주 주택의 위치(반지하, 지하, 옥상(옥탑), 지상), 방 개수, 면적 • 거주 주택의 상태, 주거환경 만족도 • 주거 정책수요 • 주거불안 상황 경험 • 자가 주택 소유 필요성 여부 및 이유 • 거주 지역에서 계속 살 의향, 학업 또는 일자리를 이유로 이사여부
건강	<ul style="list-style-type: none"> • 흡연·음주 여부, 빈도 • 운동 빈도 및 이유 • 외식 또는 매식 빈도, 같이 식사한 사람 • 수면시간 • 소진(번아웃) 경험 여부, 경험 • 우울 및 자살생각 • 전문가의 상담여부 및 어려움, 이유 • 본인에 대한 건강 인식, 건강상 이유로 활동 제한경험 및 이유 • 병의원 진료(검사 또는 치료)가 필요하나 받지 못한 경험
교육·훈련	<ul style="list-style-type: none"> • 졸업 고등학교 유형 • 취업 준비와 관련하여 도움을 받은 경험 및 정도 • 한달 평균 지출 자기계발비 • (고졸 이하) 교육이나 훈련을 받고 싶은 영역 • (대학생 및 대학 졸업자) 재학 또는 졸업한 학교의 유형, 전공, 대 학습득지식 취업도움 정도, 취업목적 사교육경험 및 도움정도

노동	<ul style="list-style-type: none"> • 수입을 목적으로 1시간 이상 일한 경험여부 및 이유 • 자영업 해당여부, 근로계약서 작성 여부, 주휴수당 수급여부 • 일자리의 산업 분야, 근무기간 및 내용, 추가수당 수급여부 • 장시간 근로 경험, 일의 자율성, 생각 • 일에 대한 생각(불안정성, 환경 오염) • 구직 경험, 구직활동 기간, 구직희망여부, 이유, 영향요인 • 15세 이후 취업 경험, 일자리 그만둔 이유 • 업무로 인하여 건강 문제 발생경험, 원치 않는 이유로 소득 없이 실했던 경험, 위험한 근로 환경 경험 빈도, 직장 내 괴롭힘에 대한 정책이 나 대응 절차 유무
관계 및 참여	<ul style="list-style-type: none"> • 어려움에 처했을 때 실제 도움을 받을 수 있는 집단여부 • 정치에 대한 관심 정도, 참여, 효능감 • 여가활동의 필요성, 경험여부, 안(못)한 이유 • 대면, 인터넷(SMS), 전화 등의 방식으로 교류하는 사람의 유무 • 외출 빈도, 은둔·고립 생활 지속 기간 및 이유
사회인식·미래설계	<ul style="list-style-type: none"> • 삶의 만족도 및 주관적 행복감 • 우리 사회에 대한 신뢰 정도 • 집단간 갈등인식, 소득 계층인식 • 우리사회 불평등 정도, 부의 대물림 인식 • 복지확대, 국가역할에 대한 인식 • 공정성 인식 • 바라는 삶의 요소 • 바라는 미래에 대한 실현 가능성, 요소 • 향후 결혼 계획, 향후 자녀 출산 의향
경제	<ul style="list-style-type: none"> • 월평균 가구 생활비 • 가구 및 개인 연간소득 • 가구 및 개인의 부채와 이자 • 가구 및 개인의 재산

02 주요결과

1. 주거

- (부모동거) 부모와 동거청년 비율은 57.5%, 연령이 높아질수록 부모 비동거 비율 ↑
 - (충남도) 부모와 동거청년 비율 48.2%로 평균보다 약 9.3% 낮음
- (독립계획) 구체적 계획 67.7% 없음. 이유는 경제적 여건부족(56.6%)이 가장 많았음
 - (충남도) 경제적 여건(44.2%), 통학·통근(40.3%)의 순으로, 경제적 여건도 중요하지만, 통학 및 통근 등 거리·공간적 영향력도 높은 것으로 나타남

구분	비율	독립을 계획하지 않는 주된 이유					
		통학·통근 가까움	경제적여건 부족	돌봄이 필요한 가구원 존재	자녀양육하 는데 부모도움 필요	기타	특별한 이유없음
전체	100	21.0	56.6	1.2	0.4	0.8	20.0
수도권	100	18.3	59.7	1.2	0.3	0.8	19.6
비수도권	100	24.5	52.5	1.3	0.5	0.8	20.5
충남	100	40.3	44.2	3.6	0.0	1.1	10.8

- (독립시기) 자산형성 후(27.8%), 취업 후(27.2%), 결혼 후(23.1%) 엇비슷한 비율
 - (충남도) 취업 후(37.3%)로 가장 높았고, 결혼 후(13.5%)로 낮았음

구분	비율	부모로부터 주거 독립에 대해 적절한 시기						
		만 19세	취업이후	어느 정도 자산형성 후	결혼이후	출산이후	자신이 원할때	굳이 필요없다 고 생각
전체	100	3.5	27.2	27.8	23.1	0.1	16.7	1.6
수도권	100	3.1	24.6	29.0	25.1	0.2	16.8	1.4
비수도권	100	4.1	30.1	26.3	20.9	0.1	16.6	1.9
충남	100	3.9	37.3	26.5	13.5	0.0	16.9	2.0

- (주거선택 및 의향) 1순위 통근·통학 좋은 위치(42.3%), 저렴한 주거비(25.9%)순
 - (충남도) 1순위 통근·통학 좋은 위치(41.4%), 저렴한 주거비(29.0%)순
- (지속 거주 의향) 현 거주지역에서 살 의향은 73.1%이었음
 - (충남도) 지속거주의향은 66.4%로 전체 평균보다 낮았고, 수도권(75.1%) 및 비수도권(70.8%)보다 낮았음
 - (충남도) 학업 또는 일자리 때문에 현재 지역에 이사한 경우가 전체 25.7%(수도권 27.9%, 비수도권 23.3%)와 비교하여 33.9%로 높았음(전국 2위)¹⁾²⁾
- (지역이동희망이유) 비수도권 청년들은 ‘더 나은 일자리 기회 또는 구직을 위해’(45.4%), 수도권 청년들은 ‘더 나은 주거환경을 위해’가 25.9%
 - (충남도) 비수도권의 청년들과 비교하여 일자리(28.6%) 및 주거환경(20.7%)가 높고, 특히 주거환경에 대한 이유는 10%이상 차이. 수도권과 비교해서는 문화향유(23.0%) 높았음

구분	비율	현재 거주 지역에서의 타 지역으로 이사하고 싶은 이유							
		주거비 부담 줄이기 위해	통학통근 어려움 해소	더 나은 교육보육 의료환경	더 나은 일자리 기회	더 나은 문화기회	더 나은 주거환경	가족 친척 사는 지역	기타
전체	100	4.3	12.0	11.5	29.6	20.5	18.1	2.6	1.3
수도권	100	7.7	19.3	12.2	13.1	17.6	25.9	2.5	1.7
비수도권	100	1.0	5.0	10.9	45.4	23.3	10.6	2.7	1.0
충남	100	0.4	6.3	15.4	28.6	23.0	20.7	2.6	3.0

- (점유형태) 형태는 자가 55.8%, 전세 21.5%, 월세 19.0% 순, 가구 유형별로는 1인가구는 월세가 가장 많았고, 청년부부 가구는 전세, 청년자녀가구·부모동거가구는 자가가 가장 많음
- (주택자금) 주택구입 등 자금조달(1순위)은 부모님·친지 63.7%, 본인 21.5%, 민간금융기관 6.5%, 정부·지자체 5.3% 순
 - (충남도) 부모님·친지 53.7%, 본인 22.7%, 민간 금융기관 11.9% 순으로, 타 지역과 비교하여 민간 금융기관자금 이용이 높은 편

1) 세종시 59.1%

2) 2022년 충청남도 청년통계에 따르면, 전입전출의 주요사유는 직업(전입 37.7% 전출 35.9%)임

구분	비율	주택 구입자금 및 임차자금 부담자(1순위)				
		본인자금	부모님 또는 친지 자금	정부나 지자체의 대출자금	민간 금융기관 자금	기타
전체	100	21.5	63.7	5.3	6.5	3.0
수도권	100	19.8	64.3	6.0	6.9	2.9
비수도권	100	23.4	63.0	4.5	6.0	3.0
충남	100	22.7	53.7	5.7	11.9	6.0

- (주택유형) 아파트가 62.8%, 다가구·다세대 22.5%, 오피스텔 6.6%, 단독주택 5.8% 순
 - 1인 가구 청년은 다가구·다세대 거주 비율이 높은 편
 - (충남도) 아파트가 62.4%, 다가구·다세대 24.0%, 오피스텔 2.6%, 단독주택 6.0% 순이며, 거주주택의 원룸형 여부의 경우 21.6%³⁾으로 높은 편
- (주거정책) 필요정책(1순위)은 구입자금대출 41.0%, 전세자금대출 23.9%, 월세 등 주거비지원 17.3%, 공공임대 11.8% 순
 - 연령이 높아질수록, 청년부부가구·자녀가구 주택구입자금대출 비율 ↑, 1인가구는 주거비 지원 비율이 상대적으로 높음
 - (충남도) 필요정책(1순위)은 구입자금대출 42.3%, 전세자금대출 23.3%, 월세 등 주거비지원 21.1%, 공공임대 6.5% 순
- (자가주택) 자가 소유 필요성은 91.3%가 긍정응답, 이유는 '원하는 기간 거주' 31.3%, 자산증식·보전 21.6%, 내집이 있어야 인정받는 분위기 13.4% 순

2. 건강

- (흡연·음주) 흡연율은 20.1%이며, 음주빈도는 월 2~4회(34.2%)가 가장 많음
- (운동) 주3회 이상 운동 32.6%이며, 운동하지 않는 이유는 시간부족이 53.3% 가장 높음
- (식사) 외식·매식빈도는 주 1~2회가 59.6%, 혼자 식사하는 비율은 20.6%
- (번아웃) 청년 세 명 중 한 명 이상(33.9%)은 최근 1년 동안 번아웃 경험 응답, 이유는 진로불안(37.6%), 업무과중(21.1%), 회의감(14.0%), 일과 삶 불균형(12.4%) 순
- (미충족의료) 최근 1년간 진료가 필요했으나 받지 못한 경험은 4.5%, 이유는 시간 부족

3) 전체 14.0%이며, 광역시 대전 22.5%, 서울 21.8%

58.1%, 비용 부담 23.7%, 의료기관에 대한 정보부족 7.6% 순

3. 교육·훈련

- (고등학교) 졸업유형은 일반고 82.7%, 특성화고 7.5%, 자율고 4.3% 순
- (대학교) 전공은 공학 18.2%, 보건·복지 14.8%, 예술·인문 14.6%, 경영·행정·법학 14.4%, 정보·통신 8.6% 순
 - 남성은 공학(29.0%)이 가장 많고, 여성은 보건·복지(21.1%)가 가장 많음
- (자기계발비) 자기계발비를 지출하고 있는 청년의 비율은 48.27%이며, 월평균 자기계발비 지출은 21.4만원(중위값 15만원)
 - (충남도) 월평균 자기계발비 23.4만원(중위값 20만원)으로 약간 높음
- (대학 미진학자 교육훈련 선호분야) 특정 직종의 직업훈련 선호 비율 (36.3%)이 높지만, 교육훈련 받고 싶지 않다는 의견도 36.9%
 - 직업훈련 외에 창업 교육(16.6%)과 어학(7.4%)을 선호하는 의견이 상대적으로 높음
 - 연령대별로 보면 19~24세는 직업훈련 선호(40.7%), 25~29세는 교육훈련을 원치 않는다는 의견(40.6%), 30~34세는 창업 교육의 선호(21.8%)가 다른 연령대보다 높음
 - (충남도) 특정직종과 관련된 직업훈련의 경우 46.2%로 전체와 비교하여 10% 높음

구분	비율	교육이나 훈련을 받고 싶은 영역					
		특정직종과 관련된 직업훈련	창업교육	어학	교양	기타	받고 싶지 않음
전체	100	36.3	16.6	7.4	2.0	0.8	36.9
수도권	100	36.2	18.1	8.5	1.8	0.5	35.0
비수도권	100	36.4	15.0	6.2	2.2	1.2	39.0
충남	100	46.2	11.4	7.1	1.4	4.3	29.5

- (취업 목적 사교육 경험) 대학생 및 대학 졸업자 중 32.4%가 취업을 위해 사교육 경험
 - (충남도) 대학생 및 대학 졸업자 중 25.5%의 충남청년이 사교육 경험

4. 노동

- (근로형태) 전일제는 78.0%로 남자(81.7%)가 여자(74.0%)보다 많음. 시간제는 22.0%
 - (충남도) 전일제 79.0%, 시간제는 21.0%
- (근로시간 및 보상) 비정규 근로시간 밤 시간 0.6일, 저녁근무 2.1일, 하루 8시간 이상 근무 4.4일, 토요일 근무 0.9일, 일요일 근무는 0.5일 가량이며, 적정보상이 이루어지고 있지 않음
 - 추가수당의 경우, 밤시간 근무는 76.7%(충남 89.3%) 수급하였으나, 저녁시간, 주말근무 등에 대해서는 50%대의 비율로 낮았음
 - (충남도) 비정규 근로시간 밤 시간 1.5일, 저녁근무 3.4일, 하루 8시간 이상 근무 6.0일, 토요일 근무 1.2일, 일요일 근무는 0.7일로 평균보다 많았음
- (자영업) 취업한 청년 중 7.5%가 자영업자
 - 남성보다 여성, 수도권보다는 비수도권이 높음. 고졸이하 학력자 자영업자 비율 11.9%로 높음
- (계약기간) 임금근로자 중 고용 계약기간이 정하지 않은 68.7%, 1년 미만이 14.8%
- (실직 사유) 최근 일자리를 그만둔 이유로 “근무 조건 또는 작업 환경이 나빠서(15.0%)”
 - 비수도권의 경우, “일이 적성에 맞지 않아서(14.7%)”로 가장 많았고, 여성은 “육아 및 가사를 도맡아야 해서(10.1%)”에 비해 남성은 0.4% 불과
 - (충남도) 기타(19.5%), 학업을 계속하려고(14.3%), 일이 적성에 맞지 않아서(13.8%) 순이며, 근무조건 또는 작업환경이 나빠서는(8.3%)이었음
- (구직 경험) 미취업자의 지난 4주 내 구직경험은 13.2%(충남 10.8%)
 - 고졸이하의 학력의 경우 20.0%, 대졸이상 학력의 경우 22.5% 구직 중
- (취업 지원) 학교(48.2%), 친구·선후배(43.6%), 부모님 등(38.9%), 사설기관(33.5%) 순
 - 공공기관은 21.0%로 가장 낮으며, 효과성에 대해서도 학교, 친구, 부모님, 사설기관 등은 50%의 응답과 비교하여 현격히 29.5%로 가장 낮았음
 - (충남도) 공공기관은 18.1%로 낮고, 효과성에 대해서도 23.3%로 낮았음
- (구직활동 하지 않는 이유) 비구직자가 구직활동을 하지 않는 이유 취업준비 47.1%, 원하는 조건을 만족하는 일자리가 없어서가 22.0% 순으로 나타남. 여성의 경우 아이를 돌보기 때문에 응답 비율 11.6%

- (충남도) 원하는 조건을 만족하는 일자리가 없어서가 37.2%, 취업준비 30.5%으로 나타남. 특히 취업준비 응답비율의 경우, 수도권 청년 52.0%, 비수도권 청년 41.9%에 비해 충남은 30.5%였음
- 고졸 이하 학력의 청년은 “당분간 쉬고싶어서”라는 응답이 13.5%로 높았고, 대졸 이상 청년의 경우 취업을 위해 준비 중이라는 비율이 58.3%로 상당히 높았음
- 특히 기능, 학력, 능력이 부족해서라는 응답이 7.8%로 고졸 이하 학력이나 재학자에 비하여 높게 나타남
- (근로환경) 업무스트레스 및 사고 다친 경험 등 건강문제가 발생한 경우가 존재
 - 특히 과중한 업무 19.1%, 성과 스트레스 11.1%, 감정 스트레스 24.9%는 일주일에 몇 번 이상의 경험
 - 취업경험(취업중)이 있는 청년 중 건강문제 및 사고로 다친 경험이 9.6%로 나타남
 - 직장내 괴롭힘에 대한 정책과 대응절차는 30.6%만 있다고 응답
- (일자리 불안정성) 원치 않는 이유로 소득 없이 쉰 경험이 있다는 비율은 전체 11.5%
 - 고졸이하 학력 청년의 경우 15.4% 가량으로, 대졸자의 10.0%에 비하여 1.5배 높은 수치를 기록함

5. 관계 및 참여

- (문화예술활동) 청년 49.4%가 1년 동안 정기적으로 참여하는 문화예술 활동 있음(충남 35.0%)
 - 문화예술에 관해서는 도시지역은 40%를 넘었으나, 도 지역에서는 40%를 넘지 못함
 - 활동경험이 없는 이유는 시간이 부족해서(45.1%), 필요 없어서(17.9%), 경제적 부담(17.8%), 경험·지식·정보 부족(10.8%) 등으로 제시됨
 - (충남도) 활동경험이 없는 이유는 시간이 부족해서(43.5%), 필요 없어서(20.4%), 경제적 부담(16.2%) 순이었음
- (스포츠 활동) 정기적 스포츠활동의 경험은 46.2%(충남 43.8%)
 - 활동경험이 없는 이유는 시간이 부족해서(48.4%), 경제적 부담(16.9%), 필요 없어서(16.5%), 함께 할 사람이 없어서(8.8%) 등으로 제시됨

- (충남도) 시간이 부족해서(50.9%), 경제적 부담(17.9%), 필요 없어서(13.8%), 함께 할 사람이 없어서(7.7%) 등으로 제시됨

6. 사회인식·미래설계

- (삶 인식) 현재 삶에 대한 만족도는 6.7점, 행복감 6.9점, 자유로운 선택 6.9점, 사회에 대한 신뢰 5.2점으로 나타남
 - (충남도) 삶에 대한 만족도는 6.9점, 행복감 7.0점, 자유로운 선택 7.0점, 사회에 대한 신뢰 4.9점으로 나타남. 다른 사회인식이 약간 높은 편에 비해 사회신뢰가 낮은 편으로 두드러짐
- (갈등인식) 소득차이 갈등은 79.1%, 세대간 갈등은 76.5%, 성별 갈등은 72.3% 순으로 많다고 응답
 - (충남도) 소득차이 갈등은 81.5%, 세대간 갈등은 75.7%, 성별 갈등은 70.4% 순으로 많다고 응답
- (청년이 바라는 미래) 가장 중요한 요소는 청년이 원하는 일자리(97.4%), 두 번째는 좋은 사람들과의 관계(95.7%), 세 번째는 높은 소득과 많은 자산(93.7%) 순이었음
 - 매우 중요하다고 응답을 기준으로 하면, 좋은 사람들과의 관계(49.2%)가 가장 높았음
- (결혼과 출산) 결혼계획 61.8%(남자 68.7%, 여자 54.2%), 출산의향 63.3%((남 70.5%, 여 55.3%))으로 남녀의 차이가 존재
 - (충남도) 결혼계획 59.3%, 출산의향 65.3%로 전체평균보다 낮은 것으로 나타남

7. 경제

- (생활비) 청년가구의 총 생활비는 월 평균 303만원, 중위는 월 평균 280만원으로 지출항목은 식료품비(96만원)로 가장 많고, 연금·사회보험료, 교통비 순이었음
 - (충남도) 총 생활비 월 평균 274만원, 중위는 250만원이었음
- (소득) 가구소득 평균은 6,525만원, 개인소득은 2,162만원, 월 180만원 수준이며, 혼자 사는 청년의 소득은 낮았음
 - (충남도) 가구소득 평균은 6,010만원, 개인소득은 2,029만원으로, 가구소득은 500만원, 개

인소득은 140만원 정도 평균보다 낮았음

- (부채) 청년가구 평균 부채금액은 4,454만원, 청년 개인은 1,172만원임
 - 부채는 주택 관련 부채 3,101만원으로 약 70%를 차지, 자산투자 부채 2.9%, 생활비 2.6% 순
 - 청년부부가구 및 청년·자녀가구의 부채금액이 많았고, 연령별로는 30~34세사이의 가구가 가장 많은 부채를 가지고 있었음. 주택관련 부채가 다른 연령대에 비해 많았음
 - (충남도) 평균 부채금액은 3,903만원, 청년 개인은 808만원이며, 주택관련 부채가 2,986만원으로 76.5%, 생활비 부채는 5.4%(전체평균 2.6%)로 2배 이상으로 높았음

8. 1인 가구 청년의 삶

- 청년가구의 22%를 차지하고 있고, 대졸이상의 청년이 가장 비중이 높음(67.3%)⁴⁾
- 주거형태는 월세가 52.7%를 차지. 학업 또는 일자리에 따라 이사한 경우가 많으며, 거주지역에 계속 살 의향은 전체에 비해 낮았음
- 우울증 유병률은 전체(6.1%)보다 높고(7.3%), 의료 및 정신건강 관련 정보 등이 부족할 가능성 높은 것으로 분석
- 우울하거나 스트레스를 받을 때 가족 도움을 요청한다고 대답한 비율이 1인가구가 가장 낮았고(70.7%), 교류가 없는 비율도 9.9%에 달함
- 생활비 중 주거비의 부담이 높은 것으로 나타남. 청년가구 전체는 식료품비-연금·보험료-교통비 순인데 비해, 1인가구의 경우 식료품-주거비 순이었음

4) 2022년 충남청년통계에 따르면, 충남의 청년전체가구 210,189 가구중 112,300가구(53.4%)가 1인 가구임

03 결과검토

1. 개요

● 실태조사 결과검토 및 의견청취 추진

- 연구는 「청년 삶 실태조사」 실태조사의 결과의 이유를 찾기 위해서 청년 및 전문가들과의 인터뷰조사를 추진하였음
- 조사방법은 실태조사의 주요결과를 설명하고, 의견을 묻는 반구조화 된 면접(semi-structured interview)으로 청년대상(3회), 전문가(1회)를 실시하였음. 대상청년은 부모동거청년, 육아청년, 자영업청년, 1인 가구청년 이었고, 전문가는 청년복지 및 청년노동전문가 이었음
- 주요내용은 ① 자립과 동거, ② 거주와 정주의향, ③노동과 퇴직(여성포함), ⑤교육과 문화 등에 대해서 자유롭게 의견을 개진하였음

<인터뷰조사 회의장면>



2. 주요의견

● 자립과 동거

- 충남의 청년들이 부모와 동거비율(48.8%)이 낮고, 독립시기도 경제적 여건보다는 취업이후 (37.2%, 전체 27.2%)로 선택비율이 높게 나온 것은 독립적인 성향이라는 해석과 일자리 부족이라는 해석이 가능
- 충남의 여건상 빠르면 중학교 때부터 부모와 떨어져 기숙사생활 등을 시작함으로써 독립적인 성향이 강할 수 있다고 생각함. 반면, 일자리 부족(원하는)에 따라 어쩔 수 없이 관외 취업을 할 수 밖에 없는 지리적 경제적 · 요인 등이 독립시기를 결정하는 것으로 봐야할 것임

● 거주와 정주의향

- 지속거주의향이 낮은 것은 청년들이 지역주거를 원하지 않기 때문인데, 이유는 지역(특히 도농 지역)에 문화·예술 등 놀거리 부족, 높은 월세 등 때문임
- 주거정책에서 충남청년이 공공임대(6%, 전체 11%)를 선호하지 않는 것은 관내 공공임대 자체가 별로 없고, 대상자가 기초생활수급자 등으로 한정적으로, 청년들에게 관심을 갖기 어려운 구조적인 원인도 존재함. 청년을 위한 공공임대정책 재정립 필요함
- 떠나지 않고 계속 살아가는 청년(일명‘토박이’)을 위한 혜택이 많지 않음. 고향 또는 지역을 지키고 살아가는 토박이를 위한 혜택이 필요하며, 이것이 정주의향과 연관됨

● 노동과 퇴직

- 강도 높은 일로 인하여 번아웃 경험 퇴직으로 연결되는 경우가 있음
- 지역에는 원하는 일자리가 많지 않음이 뚜렷하며, 비정규 일과시간 과다, 관련하여 적정수당 미지급, 업무스트레스 등 충남의 일자리의 질을 떨어뜨리는 요인들이 존재함. 따라서 충남의 일자리의 질 개선이 필요
- 사회적경제 또는 여성과학인협동조합 등 새로운 일자리 및 다양성을 만드는 것이 필요함
- 퇴직의 이유로 학업, 육아 등이 있음. 퇴직사유로 학업인 경우는 서울·수도권과 같이 일과 학업을 병행하기에 어려움이 있기 때문임. 특히 남부권(도농지역)의 경우 어려움이 큼

- 육아로 인한 퇴직이 여성퇴직자의 10% 정도를 점하는 데, 이것은 충남 여성의 일자리의 질과 관계성이 높은 것으로 보임. 일자리의 질이 낮기 때문에 여성청년들은 두 가지 선택을 하게 되는데, 즉 미련 없이 퇴직하거나 결혼을 하지 않거나 하는 선택지 밖에 없음. 아이를 키우면서 일하기에는 임금수준 등 높지 않음. 따라서 일자리 질을 올리기 위한 조치들이 적극 모색 필요
- 여성이 다수인 기관(기업)의 경우, 육아휴직 유연근무제 등이 적극 도입되어 운영됨. 따라서 퇴사율이 높지 않고 여성들이 계속 일을 할 수 있음
- 동시에 남성들이 육아에 참여할 수 있는 방식의 지원사업을 적극 고려 필요

● 교육과 문화

- 도농지역의 경우 교육접근성이 낮음. 예를 들어 피아노, 필라테스 등과 같은 취미·여가활동도 할 수 없을 정도임. 학업을 병행할 수 없고, 청년들의 역량강화의 어려움 존재함
- 취업활동에서 공공기관의 역할이 낮고, 효과면에서 부정적으로, 취업활동 및 역량강화 측면에서 전반적인 재설계를 통해 기관의 유용성을 높일 필요가 있음
- 지역에 남는 청년들의 경우 사업을 하는 경우가 많은데, 이는 가업 등을 물려받는 경우 많아서 별이가 좋음. 가업이 아닌 경우는 청년들이 지역에서 새로운 변화를 모색하기 위한 활동(‘몸부림’)이며, 이에 대한 적극적 지원이 필요함
- 자영업(창업, 고졸) 대상으로 적극적 교육프로그램 개발이 필요하며, 단순한 집체교육이 아니라, 사업컨설팅과 회계, 위생교육 등 사업성공을 위한 교육프로그램이 통합적으로 제공필요
- 청년들이 문화 스포츠활동에 참여하지 않는 이유는 시간이 없어서 라기보다는 즐길만한 것이 별로 없어서가 합리적으로 판단됨

● 기타의견

- 장애를 청년들과 차별하지 않고 교육을 받을 수 있는 동아리사업을 제안
- 청년정책사업 정보유통이 잘 되지 않아 시기가 지난 홍보물로 참가하지 못하는 경우가 있음

04 정책제안

1. 충남 청년정책 개요⁵⁾

● 정책 방향

- 충청남도 청년정책은 청년인구 감소, 청년층 부채증가, 취업자 대폭감소 등에 대응하여 충남도 50만 청년의 꿈과 희망을 응원하는 살고 싶은 충남을 조성하기 위해 적극추진 중

도내 50만 청년 미래도약 지원	
청년 정책 추진 방 향	청년의 일자리 진입·안착 지원 <ul style="list-style-type: none"> • (청년농업인 육성) 농어업분야 청년 진출 지원(1,520명), 스마트팜 조성(27개소) • (지역특화 맞춤형) 특화산업 청년일자리 매칭(394명), 맞춤형 고용 연계(5,096명) • (민간·공공 일경험) 지역 기업탐방 및 인턴십 기회 제공(2,590명) • (청년창업 활성화) 민간·지역 연계 창업지원(186명), 경영안정 강화(2,000명)
	청년 주거 부담 완화로 지역 정주율 향상 <ul style="list-style-type: none"> • (내집마련 지원) 청년 중심 공공주택 공급(979세대) • (주거안정 강화) 주거비 부담 완화(6,725명), 대학생 기숙사 운영(524명)
	미래 인재 양성을 위한 민관협력 강화 및 교육비 지원 <ul style="list-style-type: none"> • (민관협력 강화) 계약학과 설립·지원 등 기업 맞춤형 인재 양성(130명) • (혁신인재 양성) 4차산업, SW, AI융합 직무교육(1,922명) • (교육기회 보장) 교육비 부담 완화(2,980명), 맞춤형 학습프로그램 운영(68명)
	취약청년 보호 및 청년층 여가·문화 확대 <ul style="list-style-type: none"> • (취약청년 보호) 고립은둔·자립준비·가족돌봄·1인가구 지원(7,769명) • (여가문화 확대) 청년 여가 환경 조성 및 미래형 관광산업 육성(5,937명)
	청년과 소통·참여의 장 대폭 확대 <ul style="list-style-type: none"> • (정책과정 참여) 청년참여 위원회 확대 및 청년 도정 참여체계 강화(800명) • (소통체계 강화) 온라인 플랫폼 고도화(1식), 국내외 청년 교류 지원(3식)

➡ 청년의 꿈과 희망을 응원하는 청년이 살고 싶은 충남 조성

5) 2023년 충청남도 청년정책 시행계획을 기초로 분석

● 2023년 청년정책 관련사업 및 예산

- 5대 분야(일자리, 주거, 교육, 복지·문화, 참여·권리)로 구분하고, 분야별 총 123개 사업 추진, 183,987백만원의 예산집행 추진 중
- 사업과 예산액 기준 일자리분야 사업이 가장 많고, 사업기준으로는 복지·문화사업과 예산액 기준으로는 주거사업의 비중이 큰 것으로 나타남

분야	사업수(개)	예산액(백만원)	주요 사업
합계	123	183,987	
일자리	54	93,099	청년 창업·창직 지원, 청년 후계농업인 영농정착 지원
주거	7	58,884	충남형 리브투게더, 청년주택 임차보증금 이차지원
교육	18	12,633	계약학과 설립 지원, 지역착근형 청년프로그램 운영
복지·문화	29	17,971	청년 문화예술 활성화, E-스포츠 메카 조성
참여·권리	15	1,400	다이나믹 충남청년 온라인 플랫폼 고도화

2. 분야별 주요사업

● 일자리 분야

- ① 청년 창업·창직 지원사업(1,705백만원)
 - 청년 아이디어 공모, 사업화 자금(프로그램 운영비, 콘텐츠 제작비 등) 및 코칭(컨설팅·멘토링) 창업·창직 단계별 맞춤형 성장 지원 추진
- ② 청년 후계농업인 영농정착 지원(6,906백만원)
 - 인재 농업분야 유입 및 정착지원을 통해 선순환 체계구축 추진. 농지, 자금, 교육 등 농림사업 연계 지원을 통한 독립경영 안정화 및 연차별(1~3년) 영농정착지원금 지급

● 주거 분야

- ① 충남형 리브투게더 공급 추진(50,000백만원)
 - 연평균 주택가격 상승률(1.5%)을 적용하지 않은 원가 수준의 가격으로 분양(전환) 주택 공급('26년까지 공공주택 5,000호 계획)
- ② 청년주택 임차보증금 이차지원(1,085백만원)

- 고금리 영향에 따른 경제적 위기 청년의 주거 안정 기여하기 위해 주택 임차보증금 대출을 추천하고 대출이자의 일부(2년)를 보전하여 주거 부담 완화

● 교육 분야

① 지역착근형 청년프로그램 운영(230백만원)

- 청년 수요를 반영한 청년학교 및 청년커뮤니티(동아리) 운영으로 참여 위주의 학습 프로그램 운영 및 실험 학습기회 제공

② 청년 조기취업형 계약학과 지원(100백만원)

- 일터 기반 학습체계 구축을 통한 청년 일자리 창출 지원하고, 기업 맞춤형 인재 양성 및 선취업·후학습의 청년 일자리 창출 교육모델 마련

● 복지·문화 분야

① 청년 문화예술 활성화 사업(300백만원)

- 청년 문화예술사업 지원을 통한 청년 정주를 향상 및 지역 활력 제고하되, 지역주민과 함께하는 공연·전시, 행사(아이디어 공모·플리마켓), 문화예술 창작활동 등 지원

② 충남 e스포츠 메카조성 및 디지털·게임기업 육성(1,520백만원)

- e스포츠 및 디지털·게임기업 육성을 통한 청년문화여가 증진, 일자리 창출을 목적으로, 대회운영, 브랜드 디자인 등을 추진하고, 충남형 TIPS R&D자금지원

● 참여·권리 분야

① ‘다이나믹 충남청년’ 온라인 플랫폼 고도화(300백만원)

- 수요 맞춤형 정보통합 제공, 정책홍보 강화등 청년참여·소통 공간구현을 위한 소프트웨어 개발

② 충청남도 청년종합실태조사 추진(98백만원)

- 정확성·전문성 있는 기초 조사에 근거한 청년정책 발굴 및 정책 고도화를 목적으로, 청년통계, 사회조사 등 기존 데이터 분석·설문조사를 통해 맞춤형 청년정책 발굴·활용

3. 정책제안

● 「청년 삶 실태조사」 결과·검토의견의 정책적 시사점

- (일자리) 충남청년이 오늘을 살아가는 청년들에 비해 독립적인 생활을 하는 것은, 지역 내 원하는 일자리 부족하여 관외 취업하는 경제적·지리적 요인 존재
- (일자리) 많은 비정규(추가)적인 일, 적정수당, 스트레스에 따른 번아웃 경험 등이 일자의 질을 떨어뜨리며, 특히 여성의 일자의 질이 낮아 육아·학업 등의 이유로 쉽게 퇴직하게 하는 경향 존재
- (주거) 지역 정착하지 못하는 이유는 문화·예술 등 놀거리, 괜찮은 주거 등이 미흡하기 때문이며, 또한 공적주거에 대한 경험은 많지 않음
- (교육) 교육의 접근성이 높지 않아, 학업을 통한 역량강화 및 취미·여가활동에 제약이 존재함
- (1인가구) 경제적·사회적 조건 및 정주여건 면에서 취약한 청년1인가구에 대한 관심을 높일 필요 있음

● 「청년 삶 실태조사」 시사점 기반으로 3대 연계사업방향 제시

- 전략방향은 충남청년들이 삶의 불편함을 호소하는 일자리·주거·교육·1인 가구에 대한 개선을 위한 정책재설계가 필요하며, 이를 위해서 3대 사업방향을 제시
- ① 인프라형 사업: 인프라를 중심으로 기존사업을 묶어서 추진함으로써 청년들에게 삶의 문제(불편함)를 해소시키는 방식의 사업연계
- ② 연계협력형 사업: 일부지역에 편중된 사업을 충남도내 전체로 확대함으로써 청년대상을 넓히는 것을 물론 혜택이 골고루 확산되는 균형발전 추구
- ③ 제도형 사업: 청년의 삶을 어렵게 하는 문제들, 특히 일자의 질 제고 등을 위해 새로운 제도를 도입함으로써 문제해결 및 기업문화 향상. 이를 통해 청년들이 살기 좋은 충남 추구

1) (인프라형-주거) 충남청년 기숙사 (‘충남청년 생활빌리지’) 추진

- 배경: 청년독립을 위한 정주여건 필요(지리·경제적 문제), 지속정주를 위한 주거 문화환경 중요성, 청년 1인가구의 삶의 어려움 극복필요

- 목적: 청년니즈에 부합하는 생활형 SOC 조성으로 충남인으로서 자긍심 제고
- 추진방향: 1인 가구(53.4%)를 위한 **다기능 공공형 기숙사** 운영하며, 모델별로 기능 차별화
- ① 도농모델: 공동식사+창업·문화공간+위케이션+청년센터 → 몇 개 시군을 묶는 권역거점형 추진으로 최소 인원 확보
 - ※ 대상자: 귀농귀촌 및 공익활동가 사회적경제 정착지원, 스마트팜 사관학교생 선발자 등
 - ※ 연계사업: 청년농촌보급자리 조성사업(주거 1-1-16))
 - 청양군 청년창업지원공간 조성(일자리 2-2-4)
 - 예산 태안 청년 창업지원(일자리 2-2-5, 2-2-7)
 - 공익활동가·사회적경제 정착지원(일자리 1-1-17, 18)
 - 청년센터 구축 (참여·권리 1-1-3) 등
- ② 도시모델: 공동식사+창업·창직 공간+심리상담+청년센터 → 교통 편리한 도심 위치
 - ※ 대상자: 대학생·취준생·산업단지 취업자 등
 - ※ 연계사업: 충남형 1인가구 지원사업 (복지·문화 3-2-1)
 - 청년 마음건강 지원사업 (복지·문화 2-1-3)
 - 청년센터 구축 (참여·권리 1-1-3) 등
- 청년의 생애주기에 따라 **생활중심 빌리지(1인가구 공공형 기숙사)** → **충남형 리브투게더(청년 부부가족)**으로 연계추진
- 기대효과: 도전과 안정을 고취하여 경제적·심리적 위축되기 쉬운 청년의 존엄을 높이고, 충남의 뿌리내림을 적극적으로 지원

2) (연계협력형-교육) 충남청년 통합교육과정 (‘충남청년 생활학교’) 운영

- 배경: 세분화된 교육 수요 대응 및 취마·문화교육의 접근성 미흡. **취업 등 공공기관의 역할제고 필요**
- 목적: 청년니즈에 부합하는 교육프로그램 제공 및 새로운 삶을 살아갈 수 있는 방법 제시
- 추진방향: 기존 교육과정 확대 및 주체간 연계를 통해 통합교육과정 운영

6) 2023년 충청남도 청년정책 시행계획상 분야, 과제명 및 과제번호 기재

- ① **입문campus**: 미진학 청년 등 대상으로 창업·창농 등 도 중점과제 연계 교육과정 운영
 - ※ 연계기관: 도교육청, 충남문화관광재단, 농업기술원
 - ※ 연계사업: 인턴십 머물랩 공익활동가 지원(일자리 1-3-2)
 - 충남형 스마트팜 사관학교 체계구축(일자리 2-1-6) 등
- ② **창활campus**: 특정 콘텐츠 활용한 교육심화 및 찾아가는 프로그램 운영
 - ※ 연계기관: 충남정보문화산업진흥원, 충남문화관광재단
 - ※ 연계사업: 충남 글로벌게임 센터 운영(복지·문화 4-1-1)
 - 지역기반형 콘텐츠코리아랩 운영(복지·문화 4-3-3)
 - 충남 음악창작소 운영(복지·문화 4-3-4)
 - 청년문화콘텐츠센터 건립(복지·문화 4-3-5) 등
- ③ **특활campus**: 특정직종 연계직업 훈련고도화 추진
 - ※ 연계기관: 남서울대학 등 충남내 대학
 - ※ 연계사업: ICT 이노베이션 충남 스쿼어 운영(교육 2-2-1)
 - SW 미래채움(교육 2-2-3)
 - SW 중심대학 지원(교육 2-2-4) 등
- 교육과정 개설 등 online campus기반 학교운영 및 매니저 등 플랫폼 운영 (청년센터 등)
- 창활campus 및 특활campus 프로그램은 천안·이산에서 충남전역으로 확대 실시추진
- 기대효과: 중고생·미진학 및 남부권 청년까지 교육혜택이 전달되는 등 충남전역 확산
 - 대학중심 교육과정 탈피 수요응답 및 대상확대로 실질적인 교육서비스 제공 가능

3) (제도형-복지) 충남청년 지원제도 (‘충남청년 생활제도’) 도입

- 배경: 육아의 어려움으로 여성청년 경력단절 일자리의 질 등이 담보되지 않은 상황에서 청년들의 충남에 대한 신뢰가 낮아 지역이탈이 지속되는 악순환
- 목적: 청년의 삶과 일자리의 질을 제고하여 충남인으로서 자긍심과 지역정주 강화

- 추진방향: 육아·일자리·정주분야의 제도도입을 통한 기업 및 근로자 등에게 실질적 혜택
- ① 충남형 청년친화기업제도 도입·운영
 - ※ 충남도 발주사업에 대한 가점제도 운영
 - ※ 사례확산을 통한 관내기업 참여 독려
 - ※ 지표: 임금(수당포함), 근로시간, 복지혜택, 갈등중재기관 존재 등
- ② 아빠휴직지원금(장려금) 조성·운영
 - ※ 육아휴직 등 남성근로자에게 지원추진
- ③ 충남토박이 지원제도 설치
 - ※ 각종 사업시 ‘토박이’에 대한 가점부여
 - ※ 대학진학 또는 미진학 ‘토박이’에게 깎이어 프로그램 우선지원
 - ※ 연계사업: 충남형 청년 깎이어 프로그램 운영
- 기대효과: 살고 있는 충남에 대한 신뢰회복과 일자리의 질 제고 가능

참 고 자 료

국무조정실 · 한국보건사회연구원, 2023, 2022년 청년 삶 실태조사
충청남도, 2023, 2023년 충청남도 청년정책 시행계획